

## 쉽게 가는 행정학 최승호 강의계획서

원론강의 핵심 미션 : 행정학 ‘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흐름의 파악을 위한 지도 만들기(mapping)와 개념의 정리를 위한 개념노트 만들기(note taking)의 과정을 통해 자칫 막연할 수 있는 행정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입문자를 위한 강의!”

### ■ ■ 담 당 최 승 호

■ ■ 강의일정 2019년 2/11(월) ~ 2/28(목), 총 14회 ※ 월·금 주 5일 강의

■ ■ 시 간 [오전 실강반] 9시30분 ~ 13시00분

■ ■ 수강대상 행정학 입문 수험생(일반행정 직류와 재경·교육·법무행정 직류)  
- 강의 수강 전 이메일[t-4u@hanmail.net]이나 한림법학원 2층 심층상담실 “Casa Ca-Me-Yu”에서 상담 가능  
- 수강생들에 대해 강사가 직접 운영하는 관리반 “Casa Ca-Me-Yu”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 제공

■ ■ 강의교재 ▶ 쉽게 가는 행정학 원론강의 자료집(제본집, 실비제공) + 행정학 읽기 자료(무료제공)  
※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를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보여주는 자료  
방대한 행정학의 범위와 깊이를 가늠하게 하는 척도 역할을 하는 자료  
지도 만들기(mapping)와 개념노트 만들기(note taking)가 가능한 자료

■ ■ 강의특징

1. 수험 행정학 접근방법의 기본, ‘ABC 잡기!’ 시작
  - 1) 1단계 : 흐름 이해를 통한 주소 확인(Address)
  - 2) 2단계 : 내용 정리와 사례 적용을 통한 블록 완성(Bloc)  
※ 블록(Bloc)은 행정학의 수평 흐름과 수직 흐름을 이어주는 교량
  - 3) 3단계 : 답안 작성을 통한 문장구성 연습(Construction)
2. 수험 강의의 기본, ‘강사와 수강생의 협업 찾기!’ 시작
  - 1) 강사의 방향잡기와 수강생의 노젓기라는 협력을 지향하는 상담
  - 2) 20년 경력을 가진 강사의 수험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별 상담
  - 3) 5회에 걸쳐 진행되는 신림동 리포트 ‘멘토링’ 특강과 연계한 상담

## 진도별 강의내용(진도별 핵심논점)

강의 회차	날짜	강의 내용(※ 단일주제가 아닌 복합주제)
■ 제 1 회	2월 11일(월)	사회조정양식과 네트워크
■ 제 2 회	2월 12일(화)	정부와 시장의 관계 그리고 정부관
■ 제 3 회	2월 13일(수)	행정과 경영의 관계 그리고 행정관
■ 제 4 회	2월 14일(목)	신공공관리론, 시장주의 및 신관리주의
■ 제 5 회	2월 15일(금)	신공공관리론, 행정가치(행정이념 및 문화)
■ 제 6 회	2월 18일(월)	신공공관리론, 행정이론(행정학 접근방법)
■ 제 7 회	2월 19일(화)	신공공관리론, 전략적 관리와 성과관리
■ 제 8 회	2월 20일(수)	신공공관리론, 다양한 공공서비스 공급방식
■ 제 9 회	2월 21일(목)	내부관리론, 조직관리 일반론
■ 제 10 회	2월 22일(금)	신공공관리론, 조직관리기법
■ 제 11 회	2월 25일(월)	내부관리론, 인사관리 일반론
■ 제 12 회	2월 26일(화)	신공공관리론, 인사관리기법
■ 제 13 회	2월 27일(수)	내부관리론, 재무관리 일반론
■ 제 14 회	2월 28일(목)	신공공관리론, 재무관리기법

※ 수업 내용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1. 강의개설 취지 : 원론강의, ‘왜’ 필요한가?

신림동 수험가의 격언 중 하나가 ‘수업생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수험생의 궁극적인 목표인 합격을 위해서 체계적인 수험계획의 수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5급 공개 경쟁채용시험(이하 행정고시)에 합격한 선배 수험생들이 평균적으로 걸어갔던 길(일반화된 수험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에게 있어 처음 1년차 수험생활(입문 수험생활)은 이후의 수험생활 전체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행정학 용어로는 ‘경로의존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1년차 수험생활은 다시 일정한 주기(수험가 용어로는 ‘순환’)로 구분되어져서 진행되게 됩니다. 즉, 평균 16개월 정도로 구성된 1년차 수험생활은 시간적으로 ‘예비순환-1순환-2순환-3순환-4순환’의 순서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각 순환은 일정한 미션(임무)을 부여받고 있는데, 개략적으로 보면 예비순환과 1순환은 핵심 내용정리, 2순환은 기출문제 분석, 3순환은 내용암기 반복, 4순환은 답안작성 연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 순환별 미션(임무)을 크게 두 부분으로 다시 요약해보면 ‘내용정리 및 암기 그리고 답안작성’으로 구성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험생들의 실력(즉 성적)은 2차 시험장에서 작성한 답안을 통해 확인되며, 답안에 적혀진 글만이 채점자와의 (필답) 대화에서 유의미한 내용입니다. ‘답안에 쓰이지 못할 내용은 지식이 아니라 쓰레기다’라는 수험가의 또 다른 격언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위에서 제시되어진 순환단계 중 예비순환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것이 전체 수험생활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는) 수험생들의 치명적 오해 중 하나가 예비순환을 ‘대충 이런 것을 배우는 과목이구나’라고 느끼면 되는 단계 정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비순환은 ‘예비’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이나 교양기초 단계가 아니라, ‘진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필수 단계입니다.

예비순환에서 4순환까지의 순환구분의 기준은 본질적으로 ‘난이도’가 아닌 ‘중요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즉, 예비순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고, 예비순환에서 확인한 내용들이 순환이 나아감에 따라 계속 반복되면서 확장 및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예비순환이라는 ‘실전’에 적응하기 위한 단계 즉 ‘원론 강의’의 필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래 들어 앞서 가는 수험생들과 공통 과목(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비전공 입문 수험생들에게 원론강의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행정고시 합격생들을 기준으로 볼 때 (신림동 고시촌 입성으로 대변되는) ‘본격적인’ 수험준비 기간이 과거에 비해 짧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절대적인’ 수험기간이 줄어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만큼 준비가 된 상태로 (즉, 어느 정도 선행학습이 된 상태로) 본격적인 수험생활에 진입한다는 의미입니다.

### 2. 강의 미션(임무) : 행정학 원론강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는 원론강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 얘기를 했고, 이제는 세부적으로 ‘행정학’ 원론강의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행정학 답안을 잘 작성하는 방법론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학과 관련해서 가지는 수험생의 목표는 행정학 ‘고득점’이고, 고득점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효율적인 과정에 대한 고민이 수험생이 풀어야 할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는 응답보다 질문에서 판단하는 것이 좋다”는 영국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은 수험생은 끊임없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던지는 수험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학의 1년차 전체 일정을 기준으로 볼 때 원론강의에서 강사가 제시하고 수험생이 얻어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경제학이나 행정법과 구별되는 ‘사회과학’으로서의 행정학이라는 성격을 고려한다면, 유일 최선의 답은 ‘기출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흐름의 파악’과 ‘개념의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출문제에 접근”하기 위한”과 관련해서는, 우선 행정학은 범위가 없는 과목이라는 성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경제학이나 행정법과 달리, 행정학은 전형적인 기본서를 통해서 도출되어지는 ‘끝’ 즉 ‘여기서 여기까지’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격한 수험생들을 기준으로 볼 때도 개개인들마다 만들어낸 수험행정학의 정리된 범위가 다 다릅니다.

따라서 수험생의 입장에서 행정학이라는 과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내용정리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행정학 내용확정의 기준점이 미리 제시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기출문제’입니다. 매년 출제된 문제들은 형식적으로는 기존 문제와 항상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복적으로 출제되어지는 특정한 주제 내의 핵심내용 (본 강사의 용어로 ‘Bloc(블록)’이라고 지칭) 이 존재합니다.

둘째, 그런데 위에서 제시한 ‘Bloc(블록)’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접근법 즉 ‘흐름의 파악’과 ‘개념의 정리’가 병렬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Bloc(블록)’은 흐름의 파악이라는 수평적 맥락과 개념의 정리라는 수직적 맥락이 교차하는 지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단순화한다면, 행정학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Bloc(블록)’이라는 벽돌을 가지고 시험문제라는 설계도가 제시한 집 즉 답안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비순환은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얻어진 ‘Bloc(블록)’의 출제빈도를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부터 확인해가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원론강의는 예비순환에 학습되어질 부분에 대한 준비과정이라는 미션(임무)이 부여되게 됩니다. 반복하자면 원론강의의 미션(임무)은 ‘Bloc(블록)’을 찾아내기 위한 ‘흐름의 파악’과 ‘개념의 정리’가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론강의를 통해 수험생들이 부딪치게 되는 과제는 ‘흐름의 파악’을 위한 지도 만들기(mapping)라는 과정과 ‘개념의 정리’를 위한 개념노트 만들기(note taking)라는 과정으로 요약되어집니다.